

# 사회

석방 삼호드림호 김성규 선장 광주일고 48회 동창들 환호

## “친구! 잘 버텼네... 이렇게 기뻐수가”

### 무사귀환 '300통 편지 보내기 운동' 벌여 화제

“성규가 드디어 풀려났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는가. 성규가 광주에 오면 축하의 술잔을 나눠 보세.”

지난 4월 4일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32만4급 원유운반선 '삼호드림호' 선장 김성규(56·광주시 남구 봉선동)씨가 217일 만에 풀려났다는 소식을 가족 못지 않게 반가워 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바로 김 선장의 광주일고 동창생들이다.

7일 오후 광주시 북구 누문동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정에서 만난 일고 제48회 동창회 안기문(56) 회장과 동창들은 “역시 우리 친구야. 남자 중의 남자 마도로스 아닌가. 성규가 해낼 줄 알았다”라면서 환호성을 터뜨렸다.

이들은 김 선장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지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광주일고 동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300통 편지 보내기 운동'을 벌여 화제를 모았었다. (광주일보 9월 20일 8면)

자리를 함께 한 박산수(56)씨는 “동문 모두 힘을 모아 편지 띄우기 운동을 했는데,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성규에게 전달된 것 같다”며 “친구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 성규가 너무 고맙고 대견하다”고 말했다.

김씨의 건강을 걱정하는 친구도 있었다. 김혁정(56·화가)씨는 “7개월

간 억류됐다가 풀려났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안스럽다”며 “슬기롭고 우직한 친구라 잘 버텼네”고 말했다. 역시 우리 친구답다”고 설명했다.

동창들은 그동안 김씨의 가족과 아픔을 함께 하며 김씨의 석방을 맡았이 도왔다. 김 선장의 석방을 위한 것이라면 하찮은 소식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챙겼다.



지난 4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드림호'의 석방 소식이 전해진 7일 선장 김성규씨의 광주일고 동문들이 북구 누문동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정에 모여 기뻐하고 있다.

김용표(56)씨는 지난 9월 15일 이메일을 통해 동문인 오갑렬(56) 주체 코대사에게 김씨의 피랍 소식을 전했다. 과거 소말리아 피랍사건을 경험한 적 있는 오 대사는 며칠 후 이메일을 통해 “해적들이 돈을 요구하는 만큼 목숨을 해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다만 성규를 비롯한 가족들의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다. 성규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용기를 북돋웠다.

동문은 이날 중순께 김씨의 무사귀환을 축하하는 작은 행사를 열 계획

이다. 김용표씨는 “친구가 무사히 돌아왔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오는 13일 귀국한다는데, 성규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바랄 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기뻐했다.

이와 함께 광주 출신의 기관사 임중규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석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면서 “아직 어안이 병병하고, 믿기지 않아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산양삼 보조금 18억 ‘꿀꺽’ 산림업자·농민 22명 기소

### 광주지검 특수부

산양삼산(장비삼) 보조금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산림업자와 농민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7일 산림사업 관련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5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최근 수년간 곡성군과 화순군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며 1인당 2100여만~5억1200여만원씩 모두 18억1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왔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유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야사용 수익권을 불법으로 빼앗아 임야에서 친척, 법인 등 명의로 사업자 지정 받은 뒤 사업비 지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5억10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모(52)씨는 산양삼 판매업자에게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뒤 ‘실수로 돈을 입금했다’며 이를 다른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

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22명의 명단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환수토록 조치했다. 또 지난해 산림소득 사업으로 광주·전남에 지급된 보조금이 154억원에 이른 점을 감안해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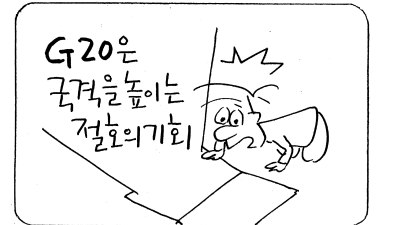
이번에 문제가 된 보조금은 2005년부터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사업자에게 지급돼 왔다. 사업자는 먼저 사업비를 집행하고 본인 부담을 제외한 60%(국가 40%, 자치단체 20%)를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수사 결과 사실상 본인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한 사례까지 적발돼 각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검 이근주 차장검사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여러 유형의 보조금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서 보조금 관련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나원침 (8163) 김종두



### 태안서 차 안 남녀 4명 숨져

충남 태안에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 남녀 4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장삼포 해수욕장에 세워져 있던 카니발 승합차에서 김모(여, 20대 후반 추정)씨와 또다른 김모(27)씨, 엄모(32)씨 등 남녀 4명(남자 3명, 여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 자전거 역주행 40대, 택시에 행패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40대가 마주 오던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차랑을 파손해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45)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께 광주시 서구 관천동 한 철물점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중 정방향으로 달리고 있던 택시기사에게 “당신은 뭘 역주행을 하는 것이냐”고 따진 뒤 자신의 자전거를 도로변에 주차해 있던 김모(30)씨의 승용차에 내팽개쳐 문을 쾅그르뜨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가 역주행한 것으로 착각해 말싸움을 시작한 뒤 화기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경찰, '건축행정 비리' 서구청 건축과 압수수색

경찰이 광주시 서구의 건축행정 비리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구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7일 서구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서구청 건축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최근 원룸 등 다세대주택 건축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의 묵인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 이날 서구청 건축과 사무실

을 압수수색했으며, 건축 허가 서류 등 관련서류를 복사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관계자는 “최근 다세대주택 건축주들이 세입자 수를 늘려 임대료를 많이 받기 위해 자신의 건물을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에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성추행 교사 교단서 퇴출

#### 범원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임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

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중학교 교사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업을 잃게 되지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계속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며, 피해자가 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협뉴스

### “골프장 식당 운영권·발전기금 내놔라”

## 고의 OB·시간끌기·직원 폭행 ‘행패’

### 전남경찰 7명 입건

지난달 10일 오전 8시30분께 영광 백수읍의 한 골프장, 골퍼를 치던 원모(46)씨가 갑자기 자신의 골프채를 언덕 아래로 내동댕이 쳤다. 캐디가 골프채를 찾아오자 이번에는 동반자 신모(44)씨가 50m 가량 떨어진 나무숲 사이로 일부러 공

을 날렸다. 그런 폭과는 동떨어진 방향이었다.

뒤따라오던 골퍼들은 이들의 행패로 인해 골퍼를 치지 못하고 발을 굴렀다. 이들은 캐디 혼자서 골프공과 골프채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골퍼 장 측은 이들의 방해로 골퍼를 치지

못한 고객 36명(9개팀)에게 293만원을 환불해줘야 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패는 골퍼를 친 뒤 더욱 심해졌다. 골퍼장 클럽하우스에 들어선 이들은 다짜고짜 탁자 위에 놓인 안내판을 계산원에게 집어던졌다. 이를 제지하던 골퍼장 실장 김모(54)씨는 원씨의 주먹에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9월 26일에도 신씨의 체어먼 승용차를 골퍼장 잔·출입로에 세워 차량 통행을 막는 등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해 왔다. “식당과 그늘집(매점) 운영권과 마을 발전기금 등을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골프장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원씨 등 7명을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월 3일 “5인 라운딩을 하겠다”며 여자를 부린 것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골프장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2월 1일 주/야, 종합/단과

#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영학원] 김영면입학원 227-8088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 무인텔 필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